■ 르 포 – '신종플루 치료 희망' 녹십자 화순공장

특명 "11월까지 백신 500만개"

백신 완제품 임상시험 내달 7일 착수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날로 늘고 있는데, 백신 생산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26일 오후 4시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주)녹십자 화순공장 플루관(FLU Building). 9천947.2m² 크기의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원료 생산공장인 플루관엔 50명의 연구원과 근로자가 고글·마스크·장갑·덧신·보호복 등으로 중무장한 채 백신 원료 생산에 열중하고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차단됐다. 직원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연구원들은 지난달 1일부터 이곳에서 기존 독감 백신의 생산을 중단하고 '유정란 배양방식'을 이용해 H1N1·H3N2 등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원료 3가지를 생산하고 있다. '유정란 배양방식'은 백신용 특수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 백신원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인플루엔자 백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인 (주)녹십자는 오는 12월 말까지 500만명 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다. 500만명 분의 백신 생산에 필요한 유정란 공급 계약도 마쳤다. 신종 플루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백신이 11월 중으로 공급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으나 연구원들은 백신 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생산이 완료된 백신의 양은 밝히지 않았다. (주)녹십자 관계자는 "신종 플루가 급속히 퍼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백신 생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며 "계획대로 연말까지 500만명 분의 백신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종플루 백신 완제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다음 달 7일 시작할 예정이다. 녹십자는 임상시험용 백신 생산이 더 늦어지면 11월로 예정된 백신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 우선 완제품을 생산하고 원액으로 할 수 있는 품질검사를 미리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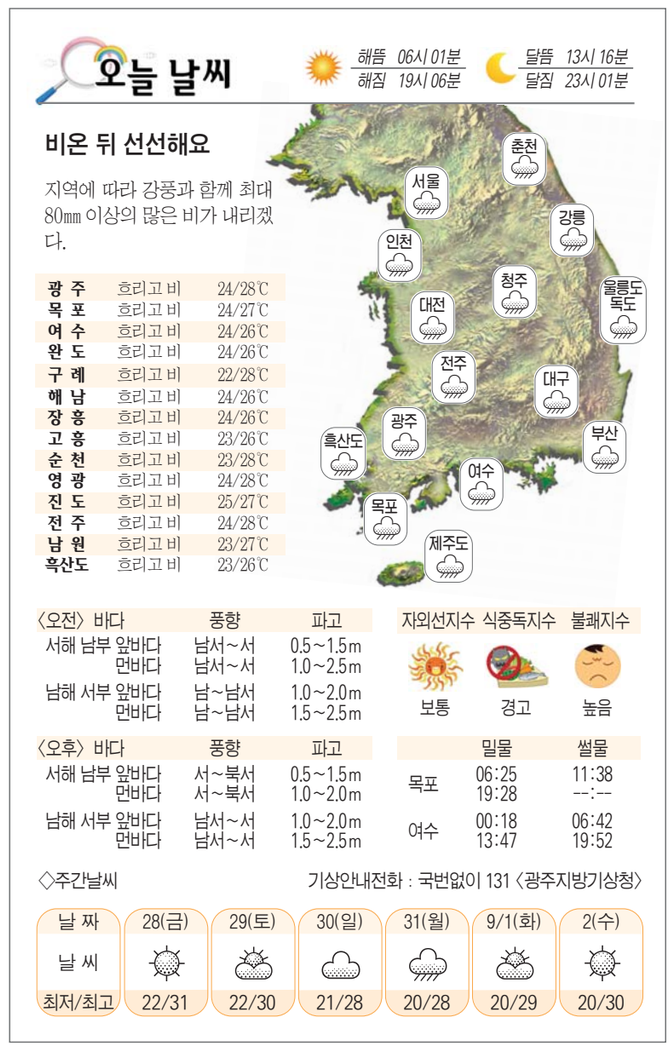
(주)녹십자 관계자는 "통상 임상시험에는 9개월에서 1년이 걸리지만, 정부가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한 만큼 완제품 생산을 차질 없이 해낸다면 백신 공급 시기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이 끝나는 대로 1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주)녹십자 화순공장은 화순읍 내평리 일반 산업단지내 부지 9만8천963㎡, 건물면적 2만3천204㎡(제조시설 1만8천784㎡, 부대시설 4천420㎡)로 총공사비 914억원이 투입됐다. 150명이 일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무등산 수박 '푸랭이' 첫 출하 무등산 수박이 올들어 처음 출하됐다. 26일 광주시 북구 금곡동에서 한 농민이 어린이들과 함께 무등산 수박을 수확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개학 후 광주 5·전남 2개 학교에 확진 환자

임시휴업 속출

신종플루가 초·중·고교를 거점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 임시휴업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확진 환자가 100명에 육박하자 전남대 및 조선대병원 등 치료거점병원들은 전문진료팀을 꾸리고 전용 진료공간을 확보하는 등 비상 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청사 곳곳에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대응책 강화에 나섰으며, 지역대학들도 외국 연수 및 해외출장을 다녀온 교수·학생들에게 7일간 학교 출입금지를 권고하는 등 감염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역 확진 환자 수는 광주 17명, 전남 80명 등 97명으로 전날보다 7명 증가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17명의 확진 환자 중 학생이 11명으로, 개학일 전후인 24일부터 확진 환자는 모두 학생들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것이 아닌 지 학교·학부모·학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확진판정 없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항바이러스제 처방전을 받아 타미플루를 복용한 환자는 광주 230명에서 273명, 전남은 39명에서 54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25일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확진환자 2명이 발생해 휴업조치(25일~29일)가 내려진 데 이어 같은 날 광주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돼 다음달 1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또 여수의 한 고교에서도 2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돼 오는 29일까지 휴업하기로 하는 등 개학 이후 광주 5곳, 전남 2곳의 학교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보건당국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일선 학교에 신종플루 감염 확산 대비책을 내려보내는 한편 무분별한 항바이러스제 남용을 막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타미플루 처방을 신중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손 세정제를 청사 곳곳에 배치했으며, 시는 마스크 1만3천500개를 제작해 시청 직원들과 보건소 등에 배포, 감기 증세를 보이는 직원들에게 즉시 착용하도록 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치료거점병원은 신종플루 환자가 늘어나자 전문진료팀과 전용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병원 출입문 앞에 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모든 학교 등교 때 교문 앞 발열 체크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휴교 사태가 잇따르는 등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교생 발열 체크, 손씻기 강화 등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하여금 매일 아침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감염 의심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 격리하도록 했다. 하루에 한번씩 교실을 소독하고 비누, 손 소독제, 소독기같은 위생 물품을 모든 교실과 복도 등지에 비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12년까지 500개 학교 통폐합·이전

2012년까지 학생 수가 적은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읍·면·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면·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천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는 초등학교 144곳, 중학교 70곳, 고등학교 10곳 등 224곳에 달한다.

교과부는 시·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푸드뱅크' 기부액 전국 최저

광발연 조인형 박사 논문

광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을 위한 푸드뱅크 수는 많지만 기부액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발전연구원 사회·복지연구실 조인형 박사는 '포커스 광주' 9월호에 실린 논문 '경기침체기의 식품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운용하는 광주지역 푸드뱅크는 모두 14곳으로, 서울(53곳), 부산(22곳)에 이어 인천과 같은 수준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부액을 분석한 결과 광주는 3억2천300만원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13번째로 나타났다. 광주보다 기부액이 적은 곳은 제주도, 울산시, 경북도 뿐이었다.

여유식품을 활용함으로써 식품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낭비 없는 식품자원 활용을 위한 식품 기부문화가 지역 내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박사는 또한 이 논문에서 광주지역 식품기부가 주식류에 편중돼 있고, 풀뿌리 식품 기부문화 자체가 매우 열악하며 공공기관의 참여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푸드뱅크업무 전담인력의 증원 ▲푸드뱅크와 유관기관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시 및 자치구의 역할강화 ▲식품기부함 설치 장소 확대 및 지역사회의 참여 유도 ▲기부식품 중 부식비중 확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확대와 지원조례의 적극적 수용 등을 제안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